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 개발연구*

김 연 수**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화적응 척도분석, 포커스집단인터뷰, 설문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문화적응척도는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중차원모델(bi-dimensional model)에 근거를 두고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의 2개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구성된 척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한국문화적응척도는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어 이해 및 구사,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한국대중매체선호, 한국정체성, 그리고 한국음식선호의 6개 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문화적응 개념에 대한 누적설명량은 66.8%,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국문화유지척도는 모국음식선호, 모국인과의 교류, 모국어 사용, 모국정체성, 모국전통유지, 그리고 모국대중매체선호의 6개 요인,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국문화유지 개념에 대한 누적설명량은 67.1%,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87로 양호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 척도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경험을 반영한 측정 도구로서 개발된 척도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실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제어 : 문화적응, 문화적응척도,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B00302).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yskim@bu.ac.kr)

I. 서론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유발되는 문화적 양상의 변화(Redfield et al., 1936, p149)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이 타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주어지게 된 개념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5년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였고, 2010년에도 10.5%에 이르는 등 전체 결혼의 11%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통계청, 2010), 결혼이민자집단의 문화적응은 여성과 가족대상 복지 및 사회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삶과 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파생시켰는데, 주로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족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로 집약될 수 있다(이혜경, 2005; 홍달아기와 채옥희, 2006; 한건수, 2006; 구차순, 2007; 정기선과 한지은, 2009; 정혜영과 김진우, 2010 등).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아래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상담 서비스 등이 지역마다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문화권으로부터 온 결혼이민자가 실제로 한국의 지역사회 및 가족생활 등에서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들이 이들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가 없어 이들의 문화적응 현황 및 정착주기에 따른 문화적응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의 경우에는 문화적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었으며, 여러 민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Berry et al., 1989; Suinn-Lew et al., 1992; Cuellar et al., 1995; Stephenson, 2000 등).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문화적응의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기에 문화적응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주제로 하거나 이를 연구의 중요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양옥경과 김연수, 2007; 권복순, 2009; 임현승, 2010; 정기선과 한지은, 2009), 외국의 문화적응 척도를 번안하여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특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연구(노하나, 2007; 최혜지, 2009), 그리고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임의로 구성하여 관련 특성들을 살펴본 연구(조창환과 성윤희, 2010) 등이 이루어졌으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문화적응은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Berry, 1997; Jayasuriya et al., 1992), 서구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미 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 자아효능감 등의 변인들과 문화적응과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다(Berry and Kim, 1988; Maynard-Reid, 2005). 특히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해 있던 문화권을 떠나 타문화권의 언어, 음식, 생활양식 및 관습 등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므로 ‘문화적응’의 이슈는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응의 측정과 관련하여 문화적응 현상은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 국경과 문화적 배경을 넘어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 항목들에 있어서는 각 사회와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는 이민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타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서구와는 다른 이민자들의 고유한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측정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는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이민자집단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성과 적응상의 이슈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문화적응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사회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도구를 개발하여 향후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의 개념 및 특성

문화는 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의 신념과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며, 습관, 관습 등은 무엇인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김정선, 2002, p26)으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문화적응이란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포괄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국내연구에서는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 등의 용어로도 함께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응은 근원이 다른 두 문화가 상호접촉을 지속적으로 할 때 유발되는 변화로서 개인에 대한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개념으로서(Berry and Sam, 1996), 이는 한 개인이 다른 문화에 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화적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Gibson, 2001, p19). 즉, 문화적응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이미 지니고 있던 기존의 문화체계와 새로운 문화체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응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문화적응의 상호작용적, 발달적, 그리고 다차원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화적응은 개인의 행동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과 같은 서로 다른 기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Cuellar et al., 1995).

문화적응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화(enculturation)와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의 개념과 의미상의 구분이 필요하다. 문화화란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의 언어, 규범, 가치 등을 배우는 과정(Berry et al., 1992; Castro, 2003, p8)을 의미하는 반면,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인 문화적 습득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문화적 변화란 한 문화권 안에서 발명이나 혁신 등과 같은 내적인 사건이 원인이 되어 변화가 유발될 때 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에 비해 문화적응이란 변화의 근원이 한 문화권 내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일 때 야기되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Berry, 1995; Castro, 2003, p8). 이와 같은 문화적응의 과정은 사회·환경적 요소와 이민자의 대처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2. 문화적응 모델과 유형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동화모델로도 불리우는 단일차원모델(unidimensional/one-dimensional model)과 정착국의 문화와 모국문화의 독립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중차원모델(two-dimensional/bidimensional model), 그리고 개념구성 상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모델(multidimensional model)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Cabassa, 2003; Castro, 2003).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은 단일차원모델에서 다차원적 모델로 발전해 왔다(Unger et al., 2007, p555).

단일차원모델이란 문화적응을 한쪽 차원에는 민족적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반대쪽 차원에는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는 특성이

있는 선형/양극적 유형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의 문화적응은 이러한 단일 선상의 스펙트럼 상에서 고유문화에서 주류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Castro, 2003, p10). 즉, 이 모델에 의하면 문화적응이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또 다른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Kang, 2006), 개인이 주류 사회 문화에 적응할수록 자신의 고유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 학자들은 이중차원모델을 제시하였다(Berry et al., 1989; Berry and Sam, 1996; Berry, 1997; Marrin and Gamba, 1996). 이 모델은 문화적응을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차원과 주류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보며, 각 차원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베리(Berry, J. W.)와 동료들(1989)은 개인이 주류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전통 등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integr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동화(assimilation)’,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며 다른 집단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것이 ‘분리(segregation)’, 그리고 개인이 민족 집단과 주류 사회 모두와 문화적, 심리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주변화(marginalization)’로서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을 범주화하였다(Berry, 1997, p9).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구분은 문화적응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후속연구들을 통해서도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응은 이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음식, 대중매체 이용, 친구 및 사회적 관계, 민족적 정체성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는 개념구성체로 이해되었는데(Berry et al., 1989; Suinn-Lew et al., 1992; Stephenson, 2000; Abraido-Lanza et al., 2006, p1343 등) 이는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로서 설명된다. 과거 언어사용이나 구사 등을 문화적응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대체모델(proxy model)을 사용하는 것은 단일차원모델로 문화적응을 설명할 때 가능한

것이며(Unger et al., 2007, p557), 다문화적인 특성을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을 다차원적 측면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고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을 측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문화적응척도 관련 선행연구

서구사회에서는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라틴계, 이탈리아계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Berry et al., 1989; Suinn-Lew et al., 1992; Cuellar et al., 1995; Stephenson, 2000; Meredith et al., 2000; Barry, 2001; Kim et al., 2001; Unger et al., 2002; Serrano and Anderson, 2003; Reid et al., 2009).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을 측정한 여러 측정도구들을 비교하거나 문화적응의 측정과 관련한 이슈에 관해 논의한 연구(Unger et al., 2007; Cabassa, 2003; Kang, 2006)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문화적응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이론적 시각을 달리하며 주류 사회의 문화에 적응해나가는 정도를 단일차원모델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과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을 독립적 차원으로 각각 측정하는 등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개발된 척도들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차원모델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응을 측정한 것으로 척도의 구성에는 문화적응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응답항목의 선택이 고유문화~주류문화에 이르는 선상에서 하나의 항목을 택하도록 구성된 척도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척도로는 히스패닉 문화적응척도(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Marin et al., 1987), 아시안 문화적응척도(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L-ASIA, Suinn-Lew et al., 1992) 등이 있다. 히스패닉 문화적응척도는 언어사용, 대중매체 선호 및 친구와 지인들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들로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항목이 “스페인어만

사용”에서부터 “영어만 사용”, “모두 스페인게임”에서부터 “모두 스페인계가 아님” 등과 같이 고유문화와 주류문화의 단일선상에서 한쪽 측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척도가 구성되어 있다(Unger et al., 2007: 556 재인용). 이 척도는 바로나(Barona, A)와 밀러(Miller, J)(1994)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용 문화적응척도(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 Youth:SASH-Y)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되어 라틴계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수앤류(Suinn-Lew)와 동료들(1992)의 척도는 아시아계 미국인자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21문항이며, 5점 척도인데, 1점은 “낮은 문화적응/높은 아시아인 자아정체성”을 가리키며, 5점은 “높은 문화적응/높은 서구적 자아정체성”을 지칭한다. 이 척도에서 두 문화 지향적인(bicultural) 개인은 척도의 중간지점에 점수가 위치하게 된다. 척도의 구성은 언어/영화/음악적 선호, 전통유지, 정체성, 음식선호, 대인관계의 5개 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차원모델에 근거하지만 응답항목을 범주화된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리커트척도 방식을 사용한 문화적응 척도로는 아프리카계 문화적응척도(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Scale, Landrine and Klonoff, 1994)가 있다. 이 척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종교적 신념과 행위, 아프리카계 미국인적인 것에 대한 선호, 인종 간 태도, 가족생활, 건강에 대한 신념과 행위, 문화적 미신, 분리, 그리고 가족가치의 총 8개 영역, 7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전통문화지향성을, 낮은 점수는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지향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문항이 너무 많아 사용에 불편이 따르므로 Klonoff와 Landrine(2000)에 의해 47문항의 척도로 단축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척도들은 주류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이 높은 개인의 문화적응을 측정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이중차원모델에 근거를 두고 베리와 동료들이 제시한 문화적응의 4유형에 따라 문화적응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4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이들 영역을 각각 측정하도록 한 척도들이 있다. 여기에는 베리와

동료들(1989)의 문화적응척도(Acculturation scale)와 동아시아계 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Barry, 2001)가 있다. 베리와 동료들이(1989) 제시한 척도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것이며,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들을 각각 20개의 문항, 총 80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에 포함된 항목들은 클럽 멤버십/조직 참여, 민족적 정체성, 언어 선호, 그리고 신문읽기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바리(Barry, D. T.)(2001)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베리(1989)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각 하위영역으로 하여 총 29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문화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척도의 경우 응답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이 한 가지로 귀속되도록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응답자들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점수를 동시에 가지므로 개인별 문화적응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는 제한점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이중차원모델에 근거를 두고 주류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측면과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측면을 각각 독립적 차원으로 두고 이를 구분하여 측정한 문화적응 척도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척도로는 다집단 문화적응척도(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 Stephenson, 2000), 멕시코인 문화적응척도(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 ARSMA-II, Cuellar et al., 1995), 이탈리아인 문화적응척도(A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Italian Canadians, Kim et al., 2001) 등이 있다. 다집단 문화적응척도(Stephenson, 2000)는 문화적응 모델을 주류 사회로의 몰입(dominant society immersion)과 민족사회로의 몰입(ethnic society immersion)의 두 차원으로 나누고, 이 두 차원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 음식, 그리고 대중매체와 관련된 태도를 포함시켰다. 이 척도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17문항이 민족사회로의 몰입을, 15문항이 주류사회로의 몰입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다. 멕시코인 문화적응척도(Cuellar et al., 1995)는 총 50문항, 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인 지향성과 멕시코인 지향성을 각각 측정하는 척도이며,

다른 하나는 분리와 주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측정영역은 언어사용과 선호, 민족적 정체성, 민족적 전통과 문화적 행위, 인종적 교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문화적응척도(Kim et al., 2001)는 주류 사회에 대한 적응을 측정한 척도와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2개의 척도로 구성되며,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류사회의 언어사용,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체성을 질문하는 4개 하위영역들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모국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9문항이며, 모든 측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한다”의 9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진다.

서구에서 문화적응과 관련된 척도개발연구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문화적응 측정을 시도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데 유사한 도구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측정한 한국생활경험 측정도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가 있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요인분석 등의 검증을 통해 척도로 개발된 도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가족 및 자녀양육문화이해, 한국음식과 옷차림적응, 한국사람 및 이주민과의 교류, 지역기관 활용능력, 한국어의 이해 및 소통, 사회문화 이해,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활동 등으로 나누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측정 항목들이 문화적응척도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문화적응을 주류 사회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양한 영역들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정착지의 언어습득 및 사용, 음식에 대한 선호,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교류 및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전통과 가치에 대한 이해, 정체성 등이 주요 개념영역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여러 척도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적응의 개념구성 및 측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들은 척도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적응척도에 대한 개념 및 지표분석,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포커스집단 인터뷰, 전문가 집단의 자문,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문화적응척도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적응척도의 주요 개념구성과 지표 및 측정항목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문화적응척도의 주요 개념영역들과 하위지표들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 9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주제로 한 포커스집단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문화적응척도를 구성하는 지표 및 문항 개발에 사용하였다. 셋째, 다문화관련 전문가 3인으로부터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피드백 및 척도의 내용타당도(face validity)에 대한 검증을 받아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척도의 측정항목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에 부합하는 적합한 항목들인지, 그리고 구성된 척도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7명으로 구성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척도에 수록된 모든 문항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사전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척도구성 및 검증과정을 거쳐 조사연구에 사용될 문화적응척도가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척도의 개념구성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1: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 문항개발

1) 기존 문화적응척도 분석

문화적응척도의 문항개발을 위한 일차적 단계로 기존 문화적응척도들의

개념구성영역들과 측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들의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척도의 개념구성영역으로 2개 이상의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측정의 하위영역들은 1) 언어사용(Language use/Language competence) 2)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ethnic interaction) 및 친구선택(friendship choice), 3) 음식선호(food preference/food selection), 4) 대중매체 사용 및 선호(mass media exposure/movie/music preference), 5) 명절 등 전통문화 및 관습지키기(holiday/cultural participation/cultural practice/cultural activities), 6) 정체성(identification)의 6개 영역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된 측정 영역은 언어, 사회적 관계, 음식, 대중매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척도에 사용된 주요 지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영역에는 언어선호도, 신문읽기, 읽기 및 쓰기, 생각하기, 언어적 상호작용, 말하기, 듣기에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영역에는 주류 사회 또는 같은 출신국의 친구 및 동료를 사귀는지, 주류 사회 또는 같은 민족 사람과 접촉하는지 등의 내용들이 측정지표로 사용되었다. 셋째, 음식영역에는 주류 사회 또는 자신의 모국음식을 자주 먹는지, 좋아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넷째, 대중매체영역에서는 모국과 주류사회의 언론매체 이용, TV시청 및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였다. 다섯째, 명절 등 전통문화 및 관습지키기의 영역에서는 가족신념 등 고유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고수나 주류 또는 전통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관습, 명절 등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행하는지가 주요 지표로 측정되었다. 여섯째, 정체감영역에서는 자신이나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민족적 정체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주요 지표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문화적응척도 개발을 위한 척도의 하위 개념구성과 측정지표를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1〉 기존 문화적응척도의 개념구성영역과 주요 지표분석

척도	개념구성영역	주요 지표 내용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Marin et al., 1987)	언어사용 대중매체 선호 친구와 지인들에 대한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 어느 언어로 방영되는 TV를 보는지/라디오를 듣는지 - 친한 친구들은 누구인지/교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스페인계인지 아닌지) 등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uiinn-Lew et al., 1992)	언어/영화/음악적 선호 전통유지 정체성 음식 선호 대인관계 (인종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언어로 글쓰기를 하는지/읽는지/대화 시 이야기하는지 - 아시안/미국계 중 음악/영화적 선호는 무엇인지 - 고유 명절을 지키거나 전통을 유지하는지/전통 행사나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지 - 부모의 정체성/자신의 정체성/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등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Scale (Landrine and Klonoff, 1994)	종교적 신념과 행위, 아프리카계 미국인적인 것에 대한 선호, 인종 간 태도, 가족생활, 건강에 대한 신념과 행위, 문화적 미신, 분리, 그리고 가족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등 종교활동을 하는지 - 흑인음악을 좋아하는지, 흑인 라디오 방송 및 TV를 청취하는지 - 흑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백인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더 편안한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흑인인지 등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Barry, 2001)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 언어선호, 대인관계, 대중매체 이용, 아시안과 미국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보다 영어로 쓰기를 더 잘하는지/집에서 영어(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지/영어(모국어) 농담을 이해하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 미국인 또는 아시안들과 더 잘 어울리는지/ 친한 친구가 아시안인지/미국인들이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느끼는지/아시안 또는 미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 아시안 음악을 주로 듣는지/ 아시안은 다른 인종과 데이트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등

척도	개념구성영역	주요 지표 내용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 (Stephenson, 2000)	주류 사회로의 몰입과 민족사회로의 몰입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 음식, 대중매체와 관련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를 말할 줄 아는지/모국어 사용을 좋아하는지/모국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말할 때 모국어를 쓰는지/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지/배우자와 모국어로 말하는지 - 모국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에 나가는지/모국에서 온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지/모국 잡지를 읽거나 음악을 듣는지/모국음식을 먹는지 - 미국인들과 만나는 모임에 나가는지/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지/미국음식을 만들 줄 아는지/미국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아는지/배우자와 영어로 말하는지/영어로 생각을 하는지/영어로 말하는 것이 편안한지/미국인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미국음식을 좋아하는지/미국신문을 읽는지 등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 (Cuellar et al., 1995)	미국인 지향성과 멕시코인 지향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 언어, 정체성, 대인관계 (인종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스페인어로 말하기를 즐기는지/영어/스페인어로 된 책을 읽는지 - 아버지/나 자신이 스스로를 라틴인/미국인으로 규정하는지 - 라틴계/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등
A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Italian Canadians (Kim et al., 2001)	주류 사회에 대한 적응 척도와 이탈리아인 정체성척도로 구분하여 측정: 언어사용,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관계, 정체성, 모국가치 및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지/영어로 생각하는지/가족모임에서 영어로 말하는지 - 영어로 된 TV프로그램을 보는지/라디오를 듣는지/신문/영화나 비디오를 보는지 - 대부분의 친구가 영국계 캐나다인인지/어울리는 사람들이 대개 영국계 캐나다인인지 - 영국계 캐나다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지/편안한지/캐나다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지 등

척도	개념구성영역	주요 지표 내용
한국 생활경험 측정 도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	가족 및 자녀양육문화 이해, 한국음식과 옷차림적응, 한국사람 및 이주민과의 교류, 지역기관 활용능력, 한국어의 이해 및 소통, 사회문화 이해,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시 한국말 사용하는지/인터넷에서 한국말로 정보를 찾는지/속담, 은어, 유머 등을 이해하는지 - 한국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만드는지 - 옷어른 공경하는 법을 아는지/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식구들과 함께 보내는지/자녀양육 및 교육문화, 제사문화, 노부모 부양문화를 잘 아는지 - 한국/모국/타국 출신 친구가 있는지/ 자주 만나는지/한국 이웃들과 어울리는지 - 시장, 마트, 은행, 동사무소 등 잘 이용하는지/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를 알고 있는지 등

* 문화적응척도로 개발된 도구는 아니지만 지표의 내용이 본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분석에 포함시켰음.

2) 포커스집단 인터뷰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경험은 서구사회의 가족단위 이민자집단이 세대를 거쳐 경험하는 문화적응 경험과 비교할 때 문화적응이라는 경험 안에서 공통적 특성도 존재하겠지만 이와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척도의 지표와 항목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최소 3년 이상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는 2개 복지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는 2009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각각 3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는 총 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출신국적은 베트남, 일본,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였으며, 연령대는 20~40대, 학력수준은 초졸과 중졸이 각 1명씩 포함되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졸 및 대졸로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짧게는 3년~길게는 10년 이상이었다. 포커스집단 인터뷰의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여 녹취록을 구성한 후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에 포함될 지표와 항목들을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에 사용된 연구 질문은 크게 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으로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구체적으로 생활의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경험은 어떤 것들인가? 3)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은 무엇인가? 등 이었으며, 각 질문에 대한 세부질문으로 기존 문화적응척도 분석결과 도출된 문화적응의 개념구성영역인 언어, 음식, 사회적 관계, 전통 및 관습, 대중매체, 정체성 영역들과 관련하여 이들의 경험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문화적응척도에 포함되는 지표와 측정 항목들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제 일상생활 경험내용을 담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한국문화 적응 및 모국문화유지의 주요 영역들과 구체적 경험의 내용들은 표 2: 문화적응에 대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내용 분석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포커스집단 인터뷰의 내용에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문화적 차이,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진술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응한 상태나 정도를 어떤 경험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척도개발을 위한 문항개발에 활용하였다.

〈표 2〉 문화적응에 대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내용 분석

	문화적응 영역	구체적 경험 내용
한국문화 적응관련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됨 - 한국말을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주변 사람들과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됨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 맡기 힘들었던 음식들을 오히려 좋아하게 됨 - 한국음식을 배워서 하게 됨/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됨 - 찌개나 국 등을 따로 덜지 않고 한 그릇에 담아 식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게 됨
	전통 및 관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제사문화나 장례문화를 알게 됨 - 추석이나 설 등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됨 - 한국 엄마들이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쏟는 것을 알고 부담이 느껴짐 - 부모를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을 알게 됨 - 고개를 숙이는 한국식 인사법을 사용하게 됨
	한국인과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집 사람들과 교류하게 됨/한국인 친구가 생김 -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음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게 됨 - 한국 가요를 듣고 같이 따라 부르게 됨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낌 - 자녀가 한국 사람으로 잘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등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곳들을 혼자서 다니게 됨 - 뉴스 등에 나오는 사건이나 일들을 앎
모국문화 유지관련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에게 간단한 모국어 가르쳐줌 - 자녀와 대화 시 모국어도 함께 사용하려고 노력함 - 모국사람들과 만나서 모국어로 이야기함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모국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함 - 모국친구들과 모여 모국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음 - 가족이나 이민자 친구들에게 모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함
	전통 및 관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의 좋은 전통을 한국생활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함 - 모국의 명절이나 종교적 기념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함
	모국인과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좋음/ 모국친구들과 친하게 지냄 - 모국친구와 있으면 마음이 편함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모국의 사이트에 들어감 - 모국에서 가져온 책을 보기도 함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나의 한쪽은 모국사람이라고 생각함 -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함 - TV나 뉴스에서 모국과 관련된 일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봄

3) 전문가 자문 및 척도 내용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화적응척도 분석과 여성결혼이민자 포커스집단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화적응의 개념구성영역들과 지표들을 토대로 문화적응척도에 포함될 하위개념과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척도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문화인류학,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3년 이상 되는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자문과정을 통하여 척도에 포함된 일부 문항들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었으며, 문항 구성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척도의 내용이 문화적응과 관련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4) 여성결혼이민자에 의한 척도 사전검증

이러한 단계를 거쳐 구성된 문화적응척도를 조사연구 실시에 앞서 여성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발된 척도의 문항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문항의 어휘 구성 등은 어렵지 않은지, 수정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문항 등이 있는지,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더 추가되어야 할 질문 등이 있는지, 그리고 5점 리커트식 척도의 구성이 응답에 혼란을 주거나 어렵지 않은지 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개발된 척도의 문항을 한 문항씩 차례대로 검토하며 각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화적응척도에 실제로 자신이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척도에 대한 사전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5) 조사에 사용될 문화적응척도 구성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조사연구에 사용될 문화적응척도가 구성되었다. 구성된 척도는 문화적응의 이중차원모델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적응

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의 독립된 2개 차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다차원적 영역으로 문화적응의 개념이 구성되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두 척도 모두 측정 영역을 1) 언어사용, 2) 음식선호, 3) 사회적 관계, 4) 전통 및 관습, 5) 대중매체 선호, 6) 정체성, 7) 기타(한국 및 모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접촉, 지역사회 및 역사이해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구성된 척도는 한국문화적응척도가 31문항, 모국문화유지척도가 23문항으로 총 54문항이었으며,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2. 연구 2: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타당도 검증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성된 문화적응척도의 각 항목들이 척도에 포함되는데 적합한 항목들인지, 어떤 하위요인으로 척도가 구성되는지, 척도의 문화적응 개념에 대한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및 NGO 단체 등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표집인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연구는 먼저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조사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를 수락한 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 지역사회복지관 5개, 시민단체 및 NGO 5개 기관으로 총 17개 기관이었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초~6월 말까지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그리고 몽골어의 6개국어로 번역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설문
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국어로 된 설문지가 없는 경우 응답자
가 한국어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었다면 한
국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연구를 위해 배부된 설문지는 총
639부였으며, 미회수되었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하
여, 총 554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들의
공통분(commonality)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스크리검사(scree
test)결과, 그리고 고유치(eigen value) 값을 기준으로 척도에 포함될 문
항과 하위영역들을 구성하였으며, KMO값과 Bartlett's test값의 유의미
성을 기준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문항이 전체 척
도와 갖는 상관관계 및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셋째, 구성된 척도가 문화적응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을 지닌 도구
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척도의 수렴
타당도 및 예측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여 척도의 변별력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²⁾인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을 위해
서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법(direct oblim)을 사용

2) 공통요인모형은 측정변수 간 상관을 설명하는 공통요인을 추출하며(이순목, 2000: 18),
주된 목적이 초기변인의 잠재적 차원과 구성을 알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김홍규,
2002: 360).

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³⁾. 요인선정의 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일 경우에 하나의 요인으로 인정하였으며, 개별 측정 항목들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최소 .3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1개의 공통요인을 뽑을 때 최소 3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순목, 1995: 38)에 부합하도록 요인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문항적합성을 검증하였다.

3) 조사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19-29세가 53%(19세 1명 포함), 30대가 34.4%로 20-30대에 속한 자들이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으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23.4%, 중소도시 거주자가 57%였으며, 농촌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19%가 포함되었다. 출신국가로는 베트남이 36.2%로 가장 많았고, 중국 29.2%, 필리핀 11.0%, 일본 8.6%, 몽골 3.6% 등이 포함되었다. 결혼 상태는 초혼이 89.9%로 대다수가 이에 속하였으며, 평균결혼기간은 약 4년 2개월이었고, 응답자의 68.1%가 자녀가 있었다.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3년 10개월 정도로 결혼기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213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가족수입을 모르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자의 비율이 35.8%로 높게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수입을 관리하는 가족 내 입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요인을 회전시키는 목적은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구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김홍규, 2002: 364).

〈표 3〉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	변수	항목	빈도 (%)
연령	19-29세	291 (53.0)	거주 지역	대도시	128 (23.4)
	30-39세	189 (34.4)		중소도시	311 (57.0)
	40-49세	61 (11.1)		농촌/어촌/산	104 (19.0)
	50세 이상	8 (1.5)		기타	3 (0.5)
평균연령 30.4세 / 표준편차 7.2세			최종 학력	무학	5 (0.9)
출신 국가	베트남	201 (36.2)		초등학교 졸업	36 (6.5)
	중국	162 (29.2)		중학교 졸업	127 (22.9)
	필리핀	61 (11.0)		고등학교 졸업	201 (36.3)
	일본	48 (8.6)		전문대학 졸업	100 (18.1)
	몽골	20 (3.6)		대학교 졸업	69 (12.5)
	태국	19 (3.4)		대학원 졸업 이상	6 (1.1)
	캄보디아	16 (2.9)		기타	10 (1.8)
	우즈베키스탄	10 (1.8)	월평균 가족 수입	100만원 미만	9 (2.5)
	인도네시아	6 (1.1)		100-200만원 미만	132 (37.0)
	기타	12 (2.2)		200-300만원 미만	139 (38.9)
결혼 상태	초혼	496 (89.9)		300-400만원 이상	55 (15.4)
	재혼	51 (9.2)		400만원 이상	22 (6.2)
	동거	2 (0.4)	월평균가족수입 213만원 / 표준편차 89.3		
	별거	1 (0.2)	자녀 유무	있음	376 (68.1)
	이혼	0 (0.0)		없음	162 (29.3)
	기타	2 (0.4)		임신중	14 (2.5)
결혼 기간	1년 미만	75 (14.0)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103 (18.9)
	1-3년 미만	172 (32.2)		1-3년 미만	171 (31.4)
	3-5년 미만	118 (22.1)		3-5년 미만	108 (19.8)
	5-10년 미만	125 (23.4)		5-10년 미만	116 (21.3)
	10년 이상	44 (8.2)		10년 이상	47 (8.6)
평균결혼기간 49.9개월 / 표준편차 44.2			평균거주기간 46.6개월 / 표준편차 41.6		

(2)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에 대한 분석은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로 나누어 각각 실시되었다. 문항제거의 기준은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공통분이 .30 미만이거나 여러 하위요인에 중복적으로 부하되는 문항,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 그리고 척도의 문항분석결과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이 .30미만으로 낮거나 문항제거 시 신뢰도 수준이 증가하는 문항으로 하였다.

① 한국문화적응척도

한국문화적응척도 31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분의 값이 .30미만이거나 여러 요인들에 중복적으로 부하되는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이에 5문항이 제외되었으며⁴⁾, 척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6문항, 6개 하위요인으로 묶여졌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적응척도의 각 문항들은 공통분의 값이 .35~.78로 산출되었으며, KMO값이 .92, Batlett's test 결과가 유의미하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제 1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은 4문항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50~.79였으며, '한국인과의 교류'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6문항이며, 요인부하량이 .61~.85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이해 및 구사'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7문항으로, .57~.79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한국 전통 및 관습이해'영역으로 지칭하였다. 제 4요인에는 3문항이 .69~.82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한국대중매체선호'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5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3문항으로 .52~.82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인 정체성'영역으로 지칭하였다. 제 6요인에는 3문항이 .46~.77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한국음식선호'영역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제시된 한국문화적응척도의 요인구성은 척도

4) 제외된 문항으로 공통분 .30미만인 문항은 “나는 한국사람들처럼 찌개를 개인그릇에 따로 덜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나누어 먹는다”이며, 여러 요인에 .30이상 중복적으로 부하되어 제외된 문항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국 친구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나는 한국사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나 뉴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다.

〈표 4〉 한국문화적응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나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공통분	문항 총점 상관
24. 한국이웃들과 잘 어울린다.	.65						.46	.51
25.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있다.	.50						.35	.52
26. 한국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좋다.	.79						.66	.54
27. 모국 사람과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64						.50	.55
1.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다.		-.79					.62	.58
2.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한국말을 이해한다.		-.85					.74	.57
3. 한국 책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를 이해하며 본다.		-.83					.70	.56
4. 한국어로 메모나 편지 등을 쓸 수 있다.		-.80					.66	.59
5. 한국 농담이나 유행어, 유머 등을 이해한다.		-.78					.64	.62
6.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61					.51	.63
33. 한국에 어떤 명절이나 국경일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66				.45	.55
34.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세배, 윷놀이, 성묘 등을 하는 한국의 풍습을 잘 알고 있다.			-.79				.64	.56
35. 한국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기념하는 제사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74				.60	.54
36.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모시는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74				.62	.61
37. 자녀교육을 부모의 일차적 책임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교육방식을 잘 알고 있다.			-.70				.54	.53
38.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한국식 인사법에 익숙하다.			-.64				.50	.57
39.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목욕방식을 잘 알고 있다.			-.57				.38	.54
11.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좋다.				-.82			.68	.52
12.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한다.				-.88			.78	.52
13. 한국 대중가요나 노래를 듣는 것이 좋다.				-.69			.50	.52
49. 나 자신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		.71	.57
50.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82		.69	.53
53. 내 자녀가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52		.36	.44
17.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46	.42	.52
18. 한국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다.						-.77	.63	.58
19.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75	.63	.64
고유값(eigenvalues)	9.3	2.5	1.9	1.4	1.2	1.0	-	-
신뢰도 계수(α)	.77	.90	.86	.83	.75	.74	-	-
설명량(%)	35.8	9.7	7.3	5.6	4.4	3.9	-	-
누적 설명량(%)	66.8 %							
전체 척도(26문항) 신뢰도 계수(α)	.93							
KMO	.92							
Batlett's test 유의도	.000							

* 요인부하량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요인을 회전시킨 결과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진 4개의 좌표면 가운데 해당요인이 어느 위치에서 묶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이 요인이 다른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요인계수행렬에서 요인의 세로줄에 (-)를 곱해서 해석해도 됨(이순목, 1995: 153).

구성 시 이론적으로 구성한 영역들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영역으로 구성된 3문항은 타 영역과 중복 부하되는 문제로 최종 척도구성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최종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의 누적설명량은 66.8%로 문화적응의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척도의 내적합치도인 신뢰도 계수는 alpha값이 .93으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문항분석 결과 척도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과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44~.64 범위 안에 있어 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구성의 내용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74~.90의 분포를 보여 하위영역의 신뢰도 또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산출된 한국문화적응척도의 6개 요인들간의 요인상관지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4~.47의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한국어 구사영역과 한국음식선호영역, 그리고 한국인 교류영역과 한국대중매체선호영역의 상관성이 다른 영역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요인상관지수를 살펴볼 때 각 요인들 간의 상관지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아 구성된 요인들이 적절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⁵⁾

〈표 5〉한국문화적응척도 요인들간의 요인상관지수

	1	2	3	4	5	6
1. 한국인과의 교류	-					
2. 한국어 이해 및 구사	-.24	-				
3.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38	.37	-			
4. 한국대중매체 선호	-.45	.31	.38	-		
5. 한국인 정체성	.34	-.35	-.27	-.35	-	
6. 한국음식 선호	-.28	.47	.35	.26	-.31	-

② 모국문화유지척도

모국문화유지척도 23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분이 .30

5) 한국문화적응척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을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하여 각 영역의 평균값을 구한 후 하위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각 하위영역들이 모두 .30이상의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어 척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만이거나 여러 요인에 .30이상 중복 부하되어 제외된 문항은 4문항이었다⁶⁾. 이에 모국문화유지척도는 총 19문항, 6개 하위요인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문항으로 구성된 모국문화유지척도의 각 문항들은 공통분의 값이 .31~.87로 산출되었으며, KMO값이 .86, Batlett's test 결과가 유의미하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제 1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은 3문항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72~.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국음식선호'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4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51~.83이었으며, '모국인과의 교류'영역으로 지칭하였다. 제 3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3문항이었으며, .45~.80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모국어 사용'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에는 3문항이 .53~.71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모국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제 5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3문항으로 .42~.78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으며, '모국전통 및 관습유지'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제 6요인에는 3문항이 .62~.79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적재되었고, '모국대중매체선호'영역으로 지칭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요인들의 누적설명량은 67.1%로 요인들이 척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된 6요인 모형의 모국문화유지척도는 설명력이 큰 요인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구조는 한국문화적응척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척도의 내적합치도인 신뢰도 계수는 alpha 값이 .87로 산출되어 척도의 신뢰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문항분석 결과 척도의 개별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34~.64의 값을 가지며, 모두 .30이상의 적절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66~.85의 분포를 보였는데 2개 영역에서 .70에 다소 못 미치는 신뢰도 값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모국문화유지척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6) 제외된 문항으로 공통분이 .30미만인 문항은 “나는 기회가 되면 여기서도 대화 시 모국어를 사용한다.”이며, 다른 요인에 .30이상 중복 부하되어 제외된 문항은 “한국에서 살지만 나는 내 모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 “나는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고 있다.”, “나는 내 모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나 뉴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다.

〈표 6〉 모국문화유지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나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문항 총점 상관
21. 모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78						.62	.59
22. 기회가 되면 모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한다.	.93						.87	.64
23. 한국 가족이나 친구에게 모국 음식의 맛을 알려려고 노력한다.	.72						.56	.61
29. 모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51					.33	.44
30. 한국에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63					.43	.46
31. 한국 친구와 있는 것 보다 모국 친구와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		.83					.70	.35
32.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모국에서 온 친구이다.		.73					.54	.37
8. 남편이나 자녀 등 한국 가족과 대화 시 모국어도 함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80				.65	.40
9. 남편이나 자녀 등 한국 가족에게 간단한 단어 나 일상어를 모국어로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73				.53	.39
10.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45				.38	.50
51.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모국사람이다.				.71			.52	.51
52. 모국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78			.62	.54
54. 내 자녀가 자신을 내 모국사람으로도 생각하기를 바란다.				.53			.31	.41
40. 내 모국의 명절이나 국경일, 종교적인 기념일 등을 한국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78		.63	.44
41. 내 모국의 명절이나 국경일, 종교적인 기념일 등에 모국사람들과 함께 모여 즐긴다.					.63		.42	.34
42. 내 모국의 좋은 전통이나 생활방식을 한국 생활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42		.36	.48
14. 인터넷 등을 통해 모국의 드라마나 영화보기를 즐긴다.						.79	.64	.58
15. 여기서도 모국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						.77	.63	.61
16. 모국어로 된 책이나 잡지, 인터넷 기사 등을 여기서도 본다.						.62	.39	.45
고유값(eigenvalues)	5.9	2.0	1.4	1.2	1.1	1.0	-	-
신뢰도 계수(α)	.85	.77	.69	.72	.66	.77	-	-
설명량(%)	31.3	10.4	7.5	6.4	5.9	5.7	-	-
누적 설명량(%)	67.1							
전체 척도(19문항) 신뢰도 계수	.87							
KMO	.86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산출된 모국문화유지척도의 6개 요인들간의 요인상관지수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01~.52의 분포로 상관성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 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국음식과 대중매체 선호영역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모국인과의 교류영역과 모국전통 및 관습유지 영역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표 7〉 모국문화유지척도 요인들의 요인상관지수

	1	2	3	4	5	6
1. 모국음식선호	-					
2. 모국인과의 교류	.34	-				
3. 모국어 사용	.34	.21	-			
4. 모국 정체성	.46	.34	.34	-		
5. 모국 전통 및 관습유지	.30	.01	.17	.30	-	
6. 모국대중매체 선호	.52	.29	.41	.49	.32	-

(3) 문화적응척도 타당도 검증

이상과 같이 개발된 한국문화적응척도⁸⁾와 모국문화유지척도⁹⁾가 문화적응의 다양한 양상들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성을 지닌 도구인지를 검토해보기 위해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그리고 변별력을 분석해보았다.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측정도구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7) 모국문화유지척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을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하여 각 영역의 평균 값을 구한 후 하위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본 결과에서는 각 하위영역들이 .18이상의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어 척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 연구결과 도출된 한국문화적응척도 6요인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Amos 19.0, 최대우도법(ML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CFI .90, TLI .87, RMSEA .067로 모형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요인구조의 확인을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조사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 9) 각주 8)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국문화유지척도 6요인 모형은 CFI .91, TLI .88, RMSEA .065로 모형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후속조사연구를 통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① 측정도구

문화적응척도의 타당도 검증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우울척도, 삶의 만족척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으로 통합·동화·분리·주변화 변인, 한국거주기간 변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문화적응척도개발을 위한 전체 설문자료에 포함되어 6개국어로 번안된 후 조사에 사용되었다.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산두(Sandhu, D. S.)와 아스라바디(Asrabadi, B. R.)(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36문항 가운데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격 영역에 해당하는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나. 우울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전경구 외, 2001)’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다. 삶의 만족척도

삶의 만족도는 디에너 외(Diener, et al)(1985)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라. 기타 변인

문화적 자기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변인을 사용하였다. 통합변인은 “나는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모국사람이다”, 동화변인은 “나는 이제 모국사람이기보다는 한국

사람이다”, 분리변인은 “나는 한국사람이기보다는 모국사람이다.”, 주변화변인은 “나는 한국 사람도 모국 사람도 아니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거주기간 변인이 사용되었으며, 3년 미만 거주자와 3년 이상 거주자로 집단을 구분한 변인이 사용되었다.

② 분석방법 및 결과

척도의 수렴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서로 다른 측정도구가 측정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때 확립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구성된 4가지 유형의 문화적 자기 정체성변인이 문화적응 척도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자신을 한국인이며 동시에 모국인으로 생각하는 통합 변인 그리고 자신을 모국인이기 보다는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동화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된 반면, 자신을 한국인이기 보다는 모국인으로 규정하는 분리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 모국문화유지척도 역시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통합 및 분리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동화 변인, 어느 쪽으로도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주변화 변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발된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문화적응의 개념을 측정하는 정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문화적응척도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변인과의 상관관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한국문화적응 척도	.36***	.32***	-.14**	-.03
모국문화유지 척도	.12**	-.12**	.27***	-.11**

***p<.001, **p<.01

10) 전체 조사 자료 가운데 300사례를 무작위로 뽑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변인과 한국문화적응 및 모국문화유지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본 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 척도의 타당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측정도구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된 문화적응척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은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Berry, 1997), 한국문화적응척도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그리고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모국문화유지척도의 경우에는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워 심리적 안녕감 변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타당한 예측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예측과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 및 우울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예측타당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국문화유지척도의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외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연구되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¹¹⁾.

〈표 9〉 문화적응 척도의 예측타당도 검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만족도
한국문화적응 척도	-.12**	-.21***	.33***
모국문화유지 척도	.24***	.08	.05

***p<.001, **p<.01

타당도 검증의 마지막단계로는 개발된 문화적응 척도가 연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변별력있게 보여주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1) 300사례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예측타당도 검증결과는 이와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을 3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 모두에서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문화적응척도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3년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산출되었으며, 모국문화유지척도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3년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더 낮게 산출되어 개발된 척도가 문화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주기간에 따른 변별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개발된 문화적응척도가 측정 도구로서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¹²⁾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3년미만 평균	3년이상 평균	t
한국문화적응 척도	3.40	3.61	-4.18***
모국문화유지 척도	3.53	3.38	3.15**

***p<.000,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독립적인 2개 차원으로 측정하는 ‘문화적응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문화적응척도는 서구사회의 이민자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 온 것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고 가족단위의 이민이 아니라 결혼이민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체계 안에서 생활하는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12) 300사례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거주기간 3년 미만자와 3년 이상자의 한국문화적응 평균은 각 3.4점, 3.6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모국문화유지 평균은 각 3.5점, 3.4점으로 3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더 낮게 산출되어 개발된 척도가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을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정도로만 측정하는 단일차원모델에서 벗어나 주류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에 대한 유지를 함께 고려하는 이중차원모델에 기반을 두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험을 반영한 문화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 6개의 하위요인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총 26문항으로 한국인과의 교류(4문항), 한국어 이해 및 구사(6문항),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7문항), 한국대중매체선호(3문항), 한국정체성(3문항), 그리고 한국음식선호(3문항)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척도의 누적설명량은 66.8%, 신뢰도계수는 alpha값이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문화적응척도를 구성하는 개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한국인과의 교류였으며, 한국어 이해와 구사, 그리고 한국전통 및 관습 이해가 다음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개념영역이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이라는 개념구성체에서 한국인들과 사귀면서 관계를 맺고, 한국어를 익숙하게 구사하게 되며, 한국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한국문화적응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모국문화유지척도는 총 19문항으로 모국음식선호(3문항), 모국인과의 교류(4문항), 모국어 사용(3문항), 모국정체성(3문항), 모국전통유지(3문항), 그리고 모국대중매체선호(3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누적설명량은 67.1%, 신뢰도 계수는 alpha 값이 .87로 양호하게 산출되었다. 모국문화유지척도의 경우에는 개념을 구성하는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모국음식선호, 모국인과의 교류, 그리고 모국어 사용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모국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러한 영역들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보게 하였다.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를 구성하는 개념구성요인들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문화적응척도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문화적응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개념들이 언어, 음식, 사회적 관계, 전통 및 관습이해, 대중매체선호, 정체성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Berry et al., 1989; Suinn-Lew et al., 1992; Stephenson, 2000; Abraido-Lanza et al., 2006), 한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데도 이러한 영역들이 중요한 개념구성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개발된 문화적응척도는 측정에 사용된 지표와 항목들의 내용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제 한국생활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실천 현장 및 연구 분야에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척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수준이 양호한 편이므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수준을 대변하는 값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구자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기 원한다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한국문화적응 평균 점수와 모국문화유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통합유형으로, 한국문화적응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모국문화유지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동화유형으로, 한국문화적응 점수가 평균보다 낮고, 모국문화유지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분리유형으로, 그리고 두 영역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지속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차원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에 대한 유지 차원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만을 보는 단일차원이 아니라 모국정체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중차원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척도 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분석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적응척도의 각 차원 및 하위 개념들과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항목들의 내용에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제적 경험이 반영되어있으므로 기존 서구의 척도와는 차별화된 내용이 담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본 척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화적응척도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관련 연구는 구체적 측정도구의 부재로 양적연구 수행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화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을 알아보며, 문화적응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등 문화적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양적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본다. 넷째, 개발된 척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연하자면,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정책입안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여러 나라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였기에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해 논의하자면, 첫째, 척도개발의 대상이 공통의 문화를 지닌 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온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여성결혼이민자라고 하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지만 그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모국의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까지 척도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이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으로 한정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자 위주의 비확률표집방법으로 이루어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다양한 국적출신으로 구성되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문화적응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화적응과 관련한 이들의 경험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경험이 반영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국적별로 한국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척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에 담아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넷째, 개발된 척도가 학문적 및 실천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예측타당도 검증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 변별력을 분석하여 개발된 척도가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도를 지니며,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지만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위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성과 개념구성타당도를 확인하며, 여러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재검증하는 등 척도에 대한 교차 타당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척도를 검증해보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적응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념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서구에서 개발된 여러 문화적응척도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문화적응척도를 구성하는 차원이나 측정영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어떤 차원과 영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역에 대한 후속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이 보다 풍부하게 반영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응척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한 현 실정에서 이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화적응척도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경험을 반영한 측정도구로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 61권 제 2호, pp. 5-32
- 김정선 역(2002). 건강질병의료의 문화분석. M. O. Loustau and E. J. Sobo. 1997. The Cultural Context of Health, Illness, and Medicine. 한울아카데미.
- 김흥규(1997). 사회과학통계분석. 나남출판.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지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8).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간사업 및 조사결과 보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양옥경 · 김연수(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26집, pp. 79-110
- 이순묵(1995). 요인분석 I -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학지사.
- 이순묵(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 1호, pp. 73-106
- 임현승(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a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한국가족복지학, 제 15권 제 2호, pp. 27-45
- 전경규 · 최상진 ·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6권 제 1호, pp. 59-76
- 정기선 · 한지은(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제 32권 제 2호, pp. 87-114

- 정혜영 · 김진우(2010).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62권 제 2호, pp. 29-55
- 조창환 · 성윤희(2010). 국내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권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54권 제 4호, pp. 374-397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61권 제 1호, pp. 163-194
- 통계청(2010). 2010년 혼인 · 이혼통계. <http://kostat.go.kr>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 39권 제 1호, pp. 195-243
- 홍달아기 ·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5권 제 5호, pp. 729-741
- Abraido-Lanza, A. F., Armbrister, A. N., Florez, K. R., & Aguirre, A. N. (2006). Toward a theory-driven model of acculturation in public healt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6 no 8, pp. 1342-1346
- Barona, A., & Miller, J. (1994).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 youth(SASH-Y): A preliminary repor,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s, vol. 16, pp. 155-162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 3, no. 4, pp. 193-197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rry, J. W., and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and N. Sartorius(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pp.207-236). London: Sage.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vol. 38, pp. 185-206
- Berry, J. W., Portinga, Y., Segall, M., and DaSen, P.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Bennet Veroff and N. Rule Goldberger(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pp. 457-488).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rry, J. W. and Sam, D. L. (1996).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A. Segall, and C. Kagitu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ocial behaviors and application*(vol. 3, pp. 291-326). Boston: Allyn & Bacon.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pp. 5-68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 25, no. 2, pp. 127-146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 Connecticut · London.
- Cuellar, I., Arnold, B., & Maldonado, R.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ver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17, no. 3, pp. 275-304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vol. 44, no. 1, pp. 19-23
- Jayasuriya, L., Sang, D., and Fielding, A. (1992). Ethnicity, immigration,

- and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of Australian research. Canberra: Bureau of Immigration Research.
- Kang, S. (2006).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scale formats, and language competence: Their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7, no. 6, pp. 669-693
- Kim, C., Laroche, M., & Tomiuk, M. A. (2001). A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Italian Canadians : scale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5, pp. 607-637
- Klonoff, E. A., & Landrine, H. (2000). Revising and improving the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Scal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vol. 26, pp. 235-261
- Landrine, H., & Klonoff, E. A. (1994). The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Scal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vol. 20, pp. 104-127
- Marin BV, Otero-Sabogal, R., & Perez-Stablel, EJ. (1987). Development of a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vol. 9, pp. 183-205
- Marrin, G. S., & Gamba, R. J. (1996). A new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for Hispanics: The b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B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18, no. 3, pp. 297-316
- Maynard-Reid, N. A. (2005). The Relations among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elf-Efficacy. A dissertation presen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Arizona State University.
- Meredith, L. S., Wenger, N., Liu, H., Harado, N., & Kahn, K. (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8, no. 1, pp. 103-113

- Redfield, R., Linton, R., & Herscovits, M. 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38, pp. 149-152
- Reid, R. J., Brown, T. L., Peterson, N. A., Snowden, L., & Hines, A. (2009). Testing the factor structure of a scale to assess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7, no. 3, pp. 293-304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 75, pp. 435-448
- Serrano, E., & Anderson, J. (2003). Assessment of a refined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Latino Preteens in Rural Colorad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25, no. 2, pp. 240-253
- Stephenson, M.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ephenson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SMAS),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12, no. 1, pp. 77-88
-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2, pp. 1041-1046
- Unger, J. B., Gallaher, P., Shakib, S., Ritt-Olson, A., Palmer, P. H., & Johnson, C. A. (2002). The AHIMSA acculturation scale: A new measure of acculturation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2, no. 3, pp. 225-251
- Unger, J. B., Ritt-Olson, A., Wagner, K., Soto, D., & Baezconde-Garbanati, L. (2007). A comparison of acculturation measures among Hispanic/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36, pp. 555-565

Abstract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on Scal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im Yoen-Soo**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acculturation scal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Korea. Acculturation is defined as a construct which has two independent dimension: 'adaptation to the mainstream's culture' and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in terms of bi-dimensional acculturation model. Based on this conceptualiz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consultation from professionals of multi-cultural study, and a survey using a purposive sampling in Seoul, Kyeonggi, and Chungcheong area were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In total 554 female marriage immigrants data were analysed.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6 factors were revealed i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scale' and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scale' respectively.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scale' was consisted of 26 items and 6 factors were as follows: social interaction with Koreans, using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 and custom, preference for Korean mass-media, Korean identity, and preference for Korean food. These factors showed 66.8% explanatory power and the scale had Cronbach's alpha .93 in a reliability test.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scale' was consisted of 19 items and 6 factors were as follows: preference for mother country's food, social interaction with people from mother country, using mother tongu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32-B00302).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mother country's identity, maintenance of mother country's tradition, and preference for mother country's mass-media. These factors showed 67.1% explanatory power and Cronbach's alpha .87 in reliability test. Also, these two scales revealed proper validity in terms of additional validity test.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culturation, Acculturation Scale, Female Marriage Immigrant,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